



5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5.7	4.3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41.81	1,239.39	↑ 0.20	↑ 12.50	785.17 '20/07/27	1,268.28 '21/04/20
인니	자카르타종합	5,928.31	5,995.62	↓ -1.12	↓ -0.85	4,507.61 '20/05/15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9,206.47	48,782.36	↑ 0.87	↑ 3.05	30,028.98 '20/05/1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18.87	3,446.86	↓ -0.81	↓ -1.56	2,813.77 '20/05/22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39.68	2,298.93	↓ -2.58	↓ -3.85	1,750.82 '20/05/25	2,468.66 '21/02/19
홍콩	H	10,699.00	10,825.25	↓ -1.17	↓ -0.37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610.65	28,724.88	↓ -0.40	↑ 5.07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97.20	3,147.86	↑ 1.57	↑ 11.27	1,922.17 '20/05/12	3,220.70 '21/04/20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5.7	4.30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2	2.42	↓ 0.00	↓ -16.30	2.16 '21/01/19	3.22 '20/05/07
인도네시아	6.41	6.46	↓ -5.00	↑ 52.50	5.89 '20/12/30	8.12 '20/05/07
인도	6.02	6.03	↓ -1.50	↑ 15.0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15	3.16	↓ -0.40	↑ 0.60	2.58 '20/05/22	3.36 '20/11/19
한국	2.12	2.13	↓ -1.00	↑ 39.8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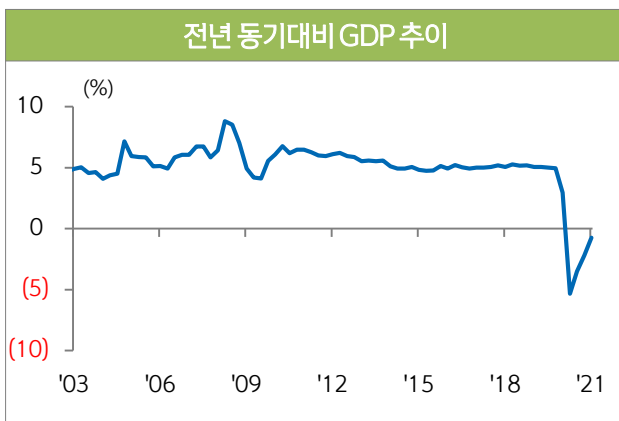
구분	5.7	4.3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65.00	23,053.00	↑ 0.05	↓ -0.14	22,970.00 '21/02/08	23,410.00 '20/05/07
달러-루피아 (IDR)	14,285.00	14,445.00	↓ -1.11	↑ 1.67	13,878.00 '20/06/05	14,995.00 '20/05/07
달러-루피 (INR)	73.51	74.08	↓ -0.77	↑ 0.60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43	6.47	↓ -0.64	↓ -1.44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1.32	1,112.31	↑ 0.81	↑ 3.20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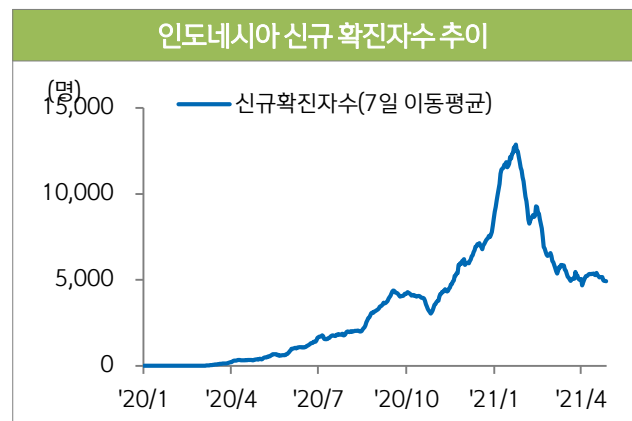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21년 1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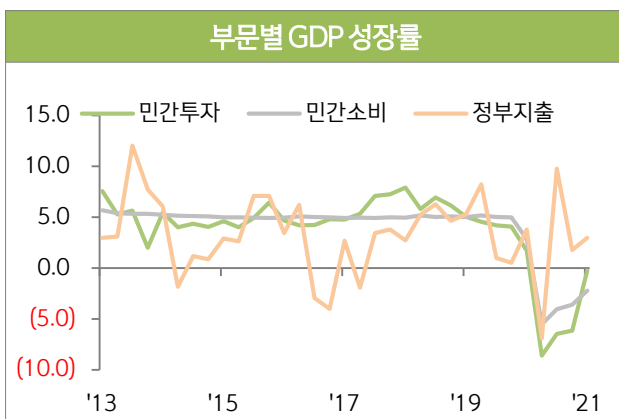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21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0.74%, 전분기 대비 연율 -0.96%를 기록하였음. 전년대비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이 지난해 2분기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던 하지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20년 4분기의 -0.42% 대비 하락 폭이 커진 것에는 지난해 연말 연초의 연휴 기간 동안의 방심으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기 이전의 확진자 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등의 영향임
-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인도네시아 GDP에서 54%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23%를 기록하였으며, 민간투자는 -0.23%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이 전년대비 +2.96%를 기록하였음.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진 것을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지속됨.** 1분기 수출과 수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전년대비 + 성장을 기록하여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였음
- ▶ 2분기에는 '20년 2분기에 전년대비 -5.32%의 극심한 성장률 부진을 기록하였던 기저 효과로 인해서 +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두번째 라마단/르바란 시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률의 반등폭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IMF는 인도네시아의 '21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1%로 전망하였었지만 4월 전망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고, 블룸버그가 조사한 '21년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도 지난해 말 전망하였던 4.9% 대비 하락한 4.64%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누적 백신 접종자수가 2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올해 5% 성장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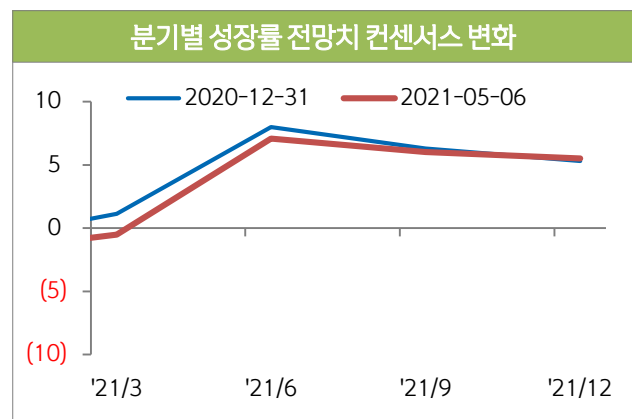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전기 오토바이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량 산업에 길을 제시해 줄 것



❖ 요약 및 시사점

맥킨지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2륜차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기차량에 있어서 2륜 전기차량을 만들어 Cost Parity를 갖출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였음. 내수용 오토바이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어 내수 및 동남아시아 주변국 수출용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륜 자동차가 사람들의 이동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임.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차량 구매에 부담이 되는 점 등등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함. 이러한 이륜 차량 선호의 상황에서 전기 오토바이의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Mckinsey&Company(이하 맥킨지)는 분석 전망을 내놓았음.
- 맥킨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인도네시아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문들을 꼽았는데, 놀랄만한 것도 아니게 전기 차량 부문이 상위 리스트에 올라왔음. 특히 전기 차량에서 오토바이 부문의 성장이 높을 것으로 보았음.
- 이륜~삼륜 차량들은 가격 측면에서 일반 차량보다 메리트가 있으며, 특히 전기 기반의 이륜~삼륜 차량의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접근하였음. 2020년에 전기 오토바이는 평생 소유비용이 평균 \$2,600 수준이었고,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평생 소유비용은 평균 \$2,400 수준이었음. 2022년이 되면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 오토바이의 평생 소유비용이 내연기관 수준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1년에 이미 달성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음.
- Statista에 따르면, 매년 편차가 있긴하지만, 2015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1일 차량 이용에 있어 오토바이에 의존하는 비중이 1억대 수준임.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 물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홈 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맥킨지의 판단이며, 생산량의 80%는 국내에서 소비하면서 20% 가량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 단가 하락으로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교했을 때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량 생산 확대 의지에 따라서 생산과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출처 : Jakarta Post)



중앙은행 : 이자율 투명성이 대출 금리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이 이자율 투명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는 기준금리 인하폭에 비해 대출금리 하락이 더뎠던 것과 달리 대출금리 하락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 참여자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기대하고 있음

-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요청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정책이 은행들에게 있어 기초대출금리(SBA)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중앙은행 부총재가 최근 발표하였음. 기초 대출 금리의 산정과 관련한 투명성은 다양한 신용 금리를 빠르게 낮추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개월 이내에 관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중앙은행 Dody Budi Waluyo 부총재는 말하였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기초 신용금리와의 금리 차이가 과거에는 4.2~4.5% 수준이었지만, 3.9% 내외로 줄어들었다고 그는 밝혔음.
- 금리 투명화 정책 이전을 살펴보면, 2020년의 기초 대출금리 하락이 단지 83bp에 불과하여 9.3%로 낮아졌지만, 2020~2021년 사이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150bp 수준이었음.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기초 대출금리 하락은 부족하였다고 부총재는 말하였음.
- 은행들이 최우대 대출 금리에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채무자들, 사업가들 및 기업들이 다시 대출 사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음. 소비자 대출, 모기지 대출 및 비모기지 대출까지 적용되는 기초 대출 금리는 지난 2달 동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 참여자들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임



경제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경제조정장관은 1분기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분기에는 더욱 개선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음

- 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0.74%를 기록하였지만, 경제 조정장관은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 V자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 소비는 2020년 1분기 대비 -2.23%를 기록하면서 2020년 4분기의 -3.61%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며,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2.96%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장관은 올해 2분기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6.9~7%의 전년대비 +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0년 2분기의 대폭 마이너스의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개선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6.9~7%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1년 1분기의 GDP가 2분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전년대비 성장률이 5.62%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인 만큼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 자체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성장에 대해서 기존의 4.5~5.3%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이돌 피트리 기간의 소비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2022년에는 5.2~5.8%의 성장 전망으로 변경하여서 기존의 5.4~6.0% 성장 전망에 대비해서는 다소 낮췄음.
- 한편, 블룸버그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2분기에 개선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종으로 인해 확산이 재개되면서 성장률 위축이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4.1~5.1%의 범위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무역과 투자는 연초 이후의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 회복에 있어서 지역 및 산업별 회복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장활동과 소비자 신뢰도 개선되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과 소매판매는 부진한 상황임.
-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조회되는 이동관련 데이터는 정부의 이동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이 개선되어야 경제회복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임

(출처 : Antara News, Bloomberg)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IT 부문, 디지털 부문 등 산업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소매 판매자부터 다양한 제조 사업체까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인도네시아 경제의 뼈대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조정장관은 발전을 위해 업종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효과적이고 기술에 기반한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공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며 전문가들과 산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협력 관점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음.
-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는 6,420만개이며, GDP의 6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97%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투자에 있어서의 비중은 60.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음. 국가 경제회복 프로그램(PEN)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인도네시아 제품 자부심 운동(Gernas BBI), 중소기업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사전 교육 카드를 활용한 인력 개발 지원, 옴니버스 법안을 통한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에서 온라인으로의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터넷 트래픽은 15~20% 증가하였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인도네시아의 1억 9,670만명의 사람들에 인터넷이 보급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될 여지가 많으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 2021년 2월 실업률 6.26%로 소폭 하락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동반되면서 실업률은 6개월 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음.

- 인도네시아의 2월 실업률이 2020년 8월 7.07%에서 6.26%로 소폭 하락하였다고 통계청이 발표하였음. 실업률이 개선된 배경에는 여성의 실업률 하락이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통계청은 집계하였음.
- 2020년 8월 여성의 실업률은 6.46%였으나, 2021년 2월 5.41%로 하락하였음. 반면, 남성의 실업률은 2020년 8월 7.48%에서 2021년 2월 6.81%로 하락하였음. 여성의 실업률 하락폭은 1.05%, 남성의 실업률 하락폭은 0.65%였음.
- 같은 기간 동안 자카르타, 반텐, 서부자바 지역에서의 실업률 감소가 크게 나타났음.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리아우섬 지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부 술라웨시 지역이었음.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 성장은 6개 산업 부문이 주도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관광 관련 산업과 교통관련 산업이 1분기에도 큰 폭으로 부진하였으며, 제조 및 무역, 건설, 광산업 등도 1분기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정보통신, 수처리, 보건 등의 분야가 +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부진함

- 인도네시아의 1분기 성장은 6개 산업이 주도하였으며,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위축이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발표하였음. 성장이 나타난 6개 산업부문은, 정보통신, 수처리, 보건, 농업, 전기가스, 부동산 산업이었음. 정보통신부문은 8.7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수처리 5.49%, 보건 3.64%, 농업 부문 2.95%로 뒤를 따랐음.
- 그러나 GDP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제조, 무역, 건설, 광산업 등은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성장을 나타냈음. 제조업 부문은 -1.38% 역성장을 하였으며, 무역이 -1.23%, 건설이 -0.79%를 기록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교통 및 창고 업종의 경우에는 -13.12%를 기록하였으며, 숙박, 음식료업의 경우에는 -7.26%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통계청장은 일정부분 경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많은 산업 부문들이 전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 -3.14%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지만 2021년 1분기에는 -1.38%를 기록하였다고 하였음.



ADB, 석탄/석유/가스에 대한 금융지원 끝내는 방향으로 초안 제시



❖ 요약 및 시사점

ADB는 화석연료와 관련한 개발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초안을 제시하였음. 아시아권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및 발전 사업 프로젝트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탄소저감 방향에 맞춰 ADB도 지원방향에 변화를 표시함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석탄 채굴, 석유/가스 개발 활동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더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초안을 지난 금요일(5/7) 발표하였음. 이러한 방향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십수년이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음.
- 아시아권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개발은행인 아시아 개발은행은 탄소에너지 개발 금융 지원 중단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다른 비용적인 우위에 있는 기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도 있다고 밝혔음.
- 환경 단체들은 ADB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차관 지원 등을 중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음. 이번 석탄 금융 지원 중단 정책은 십수년 늦은 것이지만,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음. 그러면서도 석탄 대신 화석연료가스(천연가스 등)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대체 수단으로 허용한다면 그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